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①

사띠의 기초 '잊지 않기'

'기억, 인식, 의식, 마음의 주의, 마음의 깨어 있음, 주의 깊음, 정신 차림, 마음의 평정, 자의식의 의식.'

열거한 말은 팔리어 '사띠(sati)'의 뜻으로, 팔리어 텍스트 협회에서 출간한 팔리어 사전의 풀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하나의 불교용어 해석에 이처럼 갖가지 언어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띠에 내재된 다의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사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에 '위빠사나' 명상 관련 서적이 번역 출간되면서이지만, 불교계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현대 심리학과 명상의 기법을 결합시켜 만든 '치유의 방법'들이 도입되면서일 것이다. 이 치유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사띠는 서구권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우리말로는 '알아차림'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인지치료'에 초점을 맞춘 해석일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불교계에서도 수행의 현장에서 '알아차림'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있다.



그림 · 나은영

사띠를 '알아차림'의 의미로 파악하여 '치유'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사띠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띠의 의미를 제대로 풀어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제시한 사띠의 다의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니까야〉와 〈아함경〉 전체를 대상으로 용어 '사띠'에 주목하여 읽어가다 보면, 매우 다양한 용법들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주목할 하나의 측면은 '잊지 않기'이다. 팔정도의 '정념(正念)'을 '올바른 기억'으로 해석하던 바로 그 뜻이다. 그러나 '기억'이라는 해석은 사실 판단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쉽기 때문에 '수행의 가치'라는 능동성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잊지 않기'라는 의미로써 사띠를 이해하는 하나의 독법(讀法)이 필요하다. 〈니까야〉 번역서나 학술논문에서 '새김' '마음지킴' '마음챙김'으로 옮기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되새김' '마음에 늘 간직함' '명심(銘心)'이라는 말로 옮겨도 동일한 이해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사띠의 기본적인 의미가 '잊지 않기'에 있다는 독법의 가능성은 '염불(念佛)'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 이 땅의 사찰에서 매일 거행하는 염불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염불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다. 염불이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겨 명심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성찰하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챙기려는 태도 등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염불이다. 즉, 이때의 '염(念)'이 바로 사띠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구성한다.

사띠를 '잊지 않기'로 해석하여 염불의 의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는 〈법구경〉의 제296, 297, 298 게송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부처의 제자라면 늘 깨어 있으면서 부처(佛), 부처의 가르침(法), 이를 따르는 이들(僧)을 '사띠'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팔리어 원어인 '붓다(buddha)' 뒤에 '가따(gatā)'가 붙어 있는데, 이 점은 '담마(法)'와 '상가(僧)'에도 공통한다. '가따'는 동사어근 '가다'의 과거분사로서 '-간, 도달한'의 뜻이기 때문에 '부처에게로 가는(간)'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 이르려는 자세를 드러내는 말이 바로 '잊지 않기'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산문 밖의 禪

최유현 자수장

한 땀 한 땀 부처님 곁으로…

"은하수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또는 "꽃들이 온 세상을 수놓았다."라는 표현이 있다. 단순히 은하수가 떠있고,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수놓았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이처럼 '수놓다'라는 단어는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수를 놓는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은유하고 있는 셈이다. 은하수가 밤하늘을 수놓듯이, 꽃들이 온 세상을 수놓듯이 바늘 하나와 오색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한 평생을 살아온 이가 있다. 수를 놓아 불화를 그려온 최유현 자수장(80 ·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이다.

박도일 수필가 jwpark4284@daum.net



심선신침(心線神針), 수선일여(繡禪一如)

2016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자수 작품 전시가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현 자수장의 '심선신침, 최유현 자수전'이다. 최 자수장의 전시는 그동안에도 수 십 차례 있었지만 이번 전시는 서울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시이며 최 자수장의 60년 자수세계를 망라한 전시였다.

연화장세계도(270×300cm), 팔상도(236×152cm,8점), 삼세불도(257×103cm, 257×128, 257×103), 지장보살도(164×190cm), 팔금강도(132×70cm) 등 그의 대표작인 자수불화를 비롯하여 그의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화장세계도와 팔상도, 삼세불도 등 크기가 3미터에 가까운 그의 자수불화는 일단 보는 이를 그 크기로 압도한다. 또한 멀리서 보면 자수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자수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오색실은 물감이 되고, 바늘은 붓이 되어 수많은 점과 선들을 이루어 마침내 실과 물감, 붓과 바늘의 경계를 허무는 '자수'가 탄생하는 것이다.

13세에 처음 바늘 들어

통도사 팔상도로 자수불화 발심

발심 기도 10년, 완성에 12년

일본자수 벗어나 한국자수 열어

해외 포함 20여 차례 전시

도솔래의상 · 비람강생상 · 사문유관상 · 유성출가상 · 설산수도상 · 수하항마상 · 녹원전법상 · 쌍림열반상 여덟 그림을 말하는 '팔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최 자수장의 팔상도는 통도사에 있는 팔상도를 그대로 자수로 옮긴 것이다. 한 작품 당 높이가 2미터를 넘는 팔상도 여덟 점은 이번 전시의 압권이었다. 붓으로 그렸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을 짓기까지 12년(1986~1997)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본래 팔상도를 비롯한 불화의 의미는 그림이라는 의미를 넘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경전과 같은 것이다. 경전의 한 자 한 자에서 환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최 자수장의 팔상도와 불화들은 같은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외 삼세불도 역시 오랜 세월이 걸린 작품으로 13년이 걸렸다.

그의 작품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 올 한 올 그 색과 형태를 달리하는 실들이 전하는 질감과 입체감은 경이롭다."는 평을 받았다. 그렇다 그의 자수는 경이롭다. 앞서 말한 '규모'에서 경이롭고, 회화와 자수의 경계를 허무는 '표현'에서 경이롭고, 길고 긴 작업 시간의 '정성'에서 경이롭다. 그리고 그 표현과 정성은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과 정성이라는 것에 또한 놀라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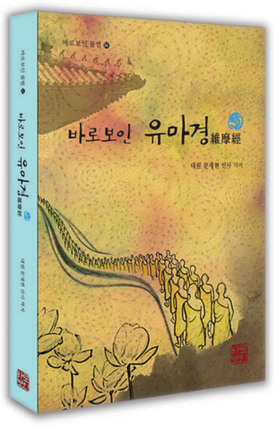
"단순히 그림을 모사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찾아낸 그림(대상)에서 또 다른 그림을 창조해야 합니다. 불화에서의 그 '창조'는 다름 아닌 신심

최유현 자수장은…

16세 때 스승인 권수산 선생 문하에서 6년 간 공부하며 자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후 부산여중과 부산여고에서 수예교사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국전에서 두 차례 입상했으며, 1960년에 최유현자수연구소를 개설했다. 해외를 포함해 20여 차례의 전시를 열었다. 대한민국 전승공예전에서 '연화장세계'를 비롯한 자수불화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부장관상, 문화재위원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 외 부산시 문화대상, MBC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1996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으로 지정됐다. 현재 부산대 복식문화연구소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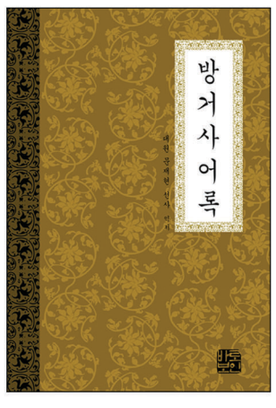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moonzenpress.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繡禪一如’ 자수불화로 발심을”

〈수선일여〉

이겠지요. 그리고 그 신심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수(불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바늘을 들 수 있어야 12년, 13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처럼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의 자수불화는 눈에 보이는 놀라움과 아울러 구(求)하는 자의 면목이 있었다. 그것이 또 다른 그의 표현과 정성의 근원이었다. 그에게 바늘을 들고 앉은 12년, 13년이라는 시간은 한 만기의 안거였다. 한 땀 한 땀의 바늘 자국은 치열한 가부좌의 자국이고, 한 땀 한 땀 오색실의 자국은 ‘나’를 향해나간, ‘나’를 지워나간 삼매의 자국이었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심선신침’ 뒤에는 ‘수선일여(繡禪一如)’가 있었다.

팔상도를 보다

“어느 날, 통도사의 팔상도를 보았죠. 그리고 그 팔상도를 자수로 지을 수 있기를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죠.”

최 자수장이 유년기를 보낸 시기는 물질의 값어치보다는 마음의 값어치에 기대 살던 시절이었다. 물자가 귀한 시절이었기에 손수 만든 물건이 값을 대신하는 시절이었고 대표적으로 여성의 혼수가 그랬다. 정성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 정성의 대표적인 물건이 자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은 자수가 일상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혼인은 일륜 중의 큰일이었다. 그 큰일을 치르기 위해 여성들은 평소 어머니 밑에서 자수를 익혔다. 최 자수장 역시 그랬다. 최 자수장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다. 무엇이든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열세 살 때 최 자수장은 바늘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자수장은 권수산이라는 그 당시 자수의 대가를 만나게 된다. 최 자수장이 열여섯 때였다. 권수산 선생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목포로 피난을 왔고, 자수 학교를 세웠다. 최 자수장은 권수산 선생이 세운 자수 학교에서 자수를 체계적으로 익히게 된다. 그리고 1960년대 초, 최 자수장은 그 동안 공부한 전통 자수를 널리 알리고 나누고자 ‘최유현자수연구소’를 개설해 후학을 양성하기에 이른다. 최 자수장은 우리 자수의 맥을 잇고 우리 자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창작 활동을 해나갔다. 생활 속에서 사라지는 자수가 아닌, ‘작품’으로 남아 자수의 저변을 넓히는 자수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작품이 모이면 전시를 열었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해외 전시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권 선생을 만나기 전인 10대와 20대에 규방의 전통 문화에 바탕을 둔 자수를 익혔던 그는 권 선생 밑에서 자수의 눈을 뜨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때까지의 자수에 적지 않은 회의를 품게 된다.

“어느 정도 자수에 눈을 뜨고 나니 회의가 밀려왔어요. 왜 같은 것만을 답습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좀 더 새로운 자수의 소재를 찾고 싶어졌던 거죠.”

그랬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모든 문화가 그랬다. 그 암울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자수 역시 국적 없는 자수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최 자수장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깊이 체감했던 것이다. 그는 한국 전통의 문양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일본 자수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한국의 민화와 옛 유물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문양과 조형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밑그림으로 하여 수를 놓기 시작했다. 한국 자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 자수장은 민화와 옛 유물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도 어느덧 40줄에 들어섰을 때였다. 우연히 찾게 된 통도사에서 그는 팔상도를 보게 된다. 그는 무릎을 쳤다. 결론은 ‘불화’였다.

맥 잇기 위해 작품 팔지 않아

“대상과 하나 되어야 의미 있어”

40대부터 불화작업만 100여 점

자수로 불교의 문화적 외연 넓혀

“죽는 날까지 바늘 안 놓을 것”

“하지만 팔상도는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자그마한 아미타부처님을 모시는 것으로 조심스러운 시작을 했죠. 저의 첫 자수불화는 아미타부처님이었죠.”

그렇게 불화에 눈 뜬 최 자수장의 가슴 깊은 곳에는 늘 팔상도가 있었다. 언제가 팔상도를 자수로 짓고 싶었다. 그는 틈이 나면 통도사를 찾아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팔상도를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린 지 10년이 되었을 때 최 자수장은 팔상도의 첫 바늘을 심게 된다. 기도에 10년, 완성에 12년,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셈이다. 그렇게 최유현의 팔상도는 태어났다. 그는 40대부터 거의 불화를 중심으로만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100여 점이 넘는 불화를 자수로 옮겼다.

“작품, 팔지 않아요”

2014년부터 부산대(복식문화연구소)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기르고 있는 최 자수장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로 강단에 선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자수라는 매력 있는 문화를 물려받았어요. 또한 그 속에는 불화라는 무궁무진한 환희심의 세계가 있어요. 계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자수의 매력을 알면서도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시작하는 이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도중에 그만 두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최 자수장은 그동안 만들어온 그의 작품을 한 점도 팔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인의 자수와 더불어 우리 자수의 맥을 잇고 싶은 염원에서다.

“작품을 잘 보존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면 이 어려운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후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지요. 자수는 느림의 미학이고 정성의 미학이죠.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없어요. ‘느림’과 ‘정성’을 받아들일 때 바늘을 들 수 있어요. 저의 자수가, 불화가 그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무언가 눈으로 보아야, 감동을 받아야 발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지요. 부디 저의 자수를 보고, 불화를 보고 발심하는 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수하면서 부처님 가까이 갔죠”

“저는 ‘초파일 신자’였죠. 불화를 알게 되면서부터 부처님 가까이 가게 됐죠.”

불교와의 인연을 묻자 최 자수장은 그렇게 답했다. 최 자수장은 한 땀 한 땀 부처님을 짓고 연화세계를 지으면서 불법에 다가가게 됐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드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에 다가가지 않고는 진정한 불화를 그려낼 수 없었던 것이다. 최 자수장의 자수에 대한 평가 중에는 “최유현 자수장의 작품에는 ‘창조’가 있다. 단지 옛것을 그대로 베끼어 옮김이 아닌 그만의 정감 있는 시선과 격조 높은 미의식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천진난만하며 자유분방한 민화에서 불화자수로 넘어가면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이어져 보는 이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최 자수장의 자수가 자수라는 분야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의미와 함께 불교의 외연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넓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5천 여 명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은 신중탱화를 하고 있어요. 7할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완성되면 관세음보살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곁에 바늘과 실이 있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여든의 그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예술과 신행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예술과 신행에서 전법의 새로운 희망을 본다. 그의 간절한 바늘 한 땀 한 땀이 불국토와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주기를 희망한다.

최유현 자수장의 작품들



석가모니불도



연화장세계도



지장보살도

전법일기

임종 두려움 넘은 염불삼매

“스님! 안녕하십니까?”

길을 가로막는 듯한 굵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병원로비에서 거사님 한 분이 밝은 표정으로 합장인사를 하고 계셨다.

“네! 반갑습니다. 몇 호에 입원하셨어요?”

“6층 병동입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는 중입니다.”

“빨리 치료받고 완쾌하셔서 정상적인 생활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법당은 어디에 있죠?”

“별관 103호에 있는데 법당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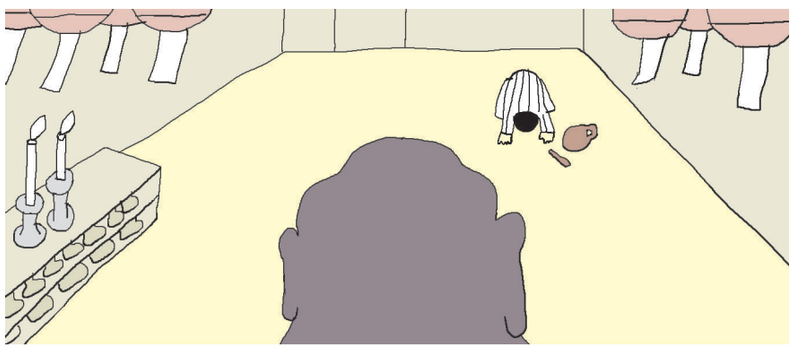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예~ 고맙습니다.”

법당에 도착하자 거사님은 부처님전에 정중히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찻잔을 앞에 두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요?”

“폐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하시는 일이 뭔데요?”

“경찰관이에요. 기동대 큰버스 운전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어쩌다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직업이 이렇다보니 밤새서 대기할 때 지루하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고, 피로가 누적돼서 그리됐죠.”

“다른 곳으로 전근도 어려우신가요?”

“예. 그런 셈이죠.”

짤막한 대화를 나눈 거사님은 그날부터 법당에 다녀간 날이면 항상 메모를 남겨놓았다. 병실에서 함께 기도하며 인연을 쌓은 거사님은 찬불가를 좋아했다. 특히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참 잘하셨다.

어느 날인가는 법당 복도에 목탁소리가 울려 퍼져 법당문을 열어보니 거사님이 목탁을 치고 계셨다. 인기척에 놀란 거사님은 목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쿠, 스님!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목탁을 쳐서….”

“아니에요. 정진하는 모습 보기 좋은데요. 열심히 하세요!”

용기를 북돋는 말이 됐는지 거사님은 종종 법당에 내려와 목탁을 치며 큰소리로 독경을 하셨다. 하지만 병세가 말기에 이르자 거사님의 발걸음은 뜸해졌다. 그러다 거사님이 병원 10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극심한 통증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병실에 들렀는데 거사님이 뜬금없이 불쑥 질문을 던졌다.

“스님,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 참말로 극락갑니까?”

나는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저 같이 좋은 일 한 적도 없고, 술 마시고 노름도 했는데 염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할 거라곤 염불밖에 없네요.”

순간 거사님의 눈빛이 반짝이는 듯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승실장스님은 거사님에게 아미타경과 108염주를 선물했다. 특히 왕생극락발원문을 열심히 읽으라는 당부도 하셨다.

거사님은 아픈 와중에도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염불을 하셨다. 하지만 슬프게도 거사님의 임종은 예상보다 빨랐다. 가족들은 거사님이 평온한 모습으로 작별인사를 나누고, 혼몽 중에도 정신이 들 때마다 입술을 들썩이며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례는 거사님 자녀인 두 남매가 상주가 돼 치렀다. 거사님의 아들은 장래희망이 경찰관이라고 했다. 의식의 끈을 놓는 그 순간까지 염불삼매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사님의 의지처럼 아들 역시 굳건한 의지로 멋진 꿈을 이뤄내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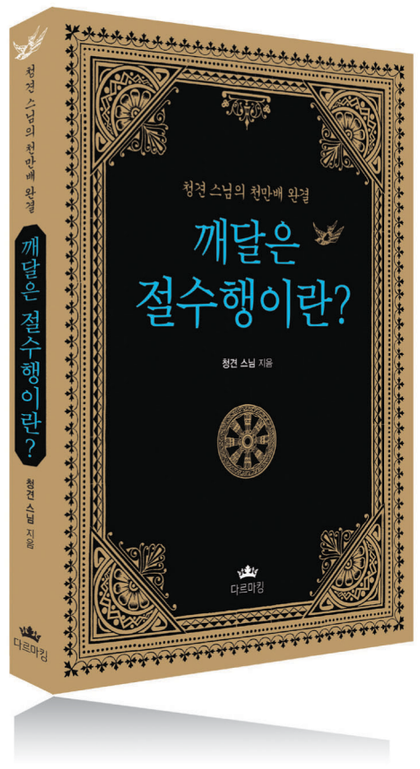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